

2013. 05. 31

국제갤러리(주)

/ 미리 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

# 빛과 어둠… 소리·정적으로 가득 채우다

조여름의 열기가 뜨겁던  
예년과 달리, 올해 베니스는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쌀쌀하고  
비까지 내렸다.  
2013년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가  
30일 언론 공개를 시작으로  
6월 1일 공식 개막한다.  
11월 24일까지 6개월간 펼쳐진다.

## ■ 내일 개막… 6개월 대장정

유명 설치작가 김수자 작품  
반투명 필름으로 안팎 감싸  
고운 “자궁속 태아같은 느낌”



유리창을 반투명필름으로 감싼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지난 30일 두 관람객이 빛에 따라 무지개색으로 반짝이는 한국관에서 사진 찍기에 열중하고 있다.

■ 이탈리아 베니스의 카스텔로자르디니에 자리 잡은 한국관 안팎이 반투명필름으로 감싸졌다. 신발을 벗고 실내에 들어서면 유리창뿐 내부는 텅 비어 있다. 전시작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싶을 정도다.

비오는 날이라 자연광은 약하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필름들이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며 시각을 흔든다. 바닥과 벽면 위로는 관람객의 그림자가 길게 드러난다. 오묘한 무지갯빛 스펙트럼에 적응이 될 무렵, 스파클을 통해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가 반복해 들린다. 번호표를 받아 20여 분 기다려 입장한 암실에선 완전한 어둠과 정적과 맞닥뜨리게 된다.

프랑스 현대미술센터 르콩소르시움 공동디렉터



인 김승덕 씨가 커미셔너를 맡고 설치작가 김수자 (56·사진) 씨가 꾸민 한국관이 30일 언론에 공개됐다. 뉴욕 파리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를 유목민처럼 떠돌면서 작품활동 중인 김수자 씨는 해외서 더 유명한 미술작가다. 그는 알록달록한 전통 이불천을 감싸는 ‘보따리’, 자신의 몸을 상징축으로 세계 대도시 현대인의 삶을 담은 ‘바늘여인’ 및 실의 문화를 주목한 ‘실의 궤적’ 시리즈 등을 발표했다. 베니스비엔날레엔 1999·2005년 두 차례 본전시에 참가했고, 비엔날레 기간

중의 기획전까지 총 6회 출품했다. 커미셔너와 함께 그는 “유리창과 철골로 이뤄진 한국관에 다른 물질을 더하지 않고 건물 자체를 중시하는 작업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관 작품을 구상하면 지난해 여름 미국서 엄청난 허리케인을 경험했어요. 전기도 온수도 없는, 문명으로부터 단절된 채 1주일여 지내면서 문득 빛으로 한국관을 보파리처럼 감싸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관객이 자신과 몸을 지각할 수 있는 공간도 그때 구상했어요.”

반투명필름으로 유리창을 감싼 설치작품 ‘호흡·보따리’, 작가의 숨소리를 담은 9분 14초 길이의 사운드 ‘더 위빙 팩토리’와 소리와 빛을 차단한 완

전한 암흑뿐의 블랙홀 같은 설치작품 ‘호흡·정전’의 3개다. 기존의 영상 설치작품에서 자연과 일상의 색을 고스란히 담아냈던 그는 이번 신작에선 빛을 반사하고 모으는 흰색과 검정 위주의 이미지를 시도했다. 인위적 연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담아내는 그는 베니스 신작에선 다만 빛이 반사·굴절되면서 이뤄내는 오색찬란한 광채를 통해 전통옷감의 색동 같은 화려한 색감을 전시공간에 펼쳐 냈다.

베니스에 체류 중 한국관 전시를 관람한 고은 시인은 “전시장에서 마치 엄마의 몸, 자궁 속 태아와 같이 스스로가 정화된 느낌”이라고 김수자 씨의 작품에 시적 찬사를 보냈다.

베니스=글·사진 신세미 기자 ssemi@munhwa.com

## 88개국 국가관 마련… 본전시 한국작가 출품 못해

본전시 37개국 150여명 참여  
수교 50돌 佛·獨 기획전 인기

■ 곳은 날씨에도 이탈리아 베니스의 카스텔로자르디니·아르세날레에서 열리는 격년제 현대미술 축제는 세계 각국 관람객들로 붐볐다. 국가관 전시 중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전시공간을 맞바꾼 프랑스 독일의 기획전은 2시간여 기다릴 만큼 장사진을 이뤘다.

독일관에서 열리는 프랑스 국가전에선 알바니아

출신 안리 살라의 영상이 선보였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의 손동작과 DJ의 얼굴을 담은 영상을 통해 음악을 눈과 귀로 만나는 작품이다. 프랑스관서 펼쳐지는 독일 국가전에는 중국의 아이웨이웨이(艾未未), 남아프리카의 산투 모포켕 등 외국 작가 4명이 출품했다. 베니스비엔날레는 국가관 때문에 ‘미술 올림픽’으로도 불리지만, 독일-프랑스 두 나라는 전시장을 상호 교환하고 타국 작가를 참여시켜 국가관의 개념을 확장시킨 것. 돌, 엽서, 공구 등 일상용품을 소재로 작업한 미국관의 사라 제 전시, ‘신뢰 평화 사랑’ 등 다섯

단어가 짹힌 동전이 비처럼 떨어지는 러시아관의 바딤 자카로브 전시도 흥미로웠다. 이 밖에 올해 처음 참가하는 교황청 코소보 앙골라 등 10개국을 포함해 88개국이 국가관을 마련했다.

2013년 전시 총감독 마시밀리아노 지오니는 2010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한 이탈리아 출신의 기획자. 3년 전 고은 시인의 동명연작시에서 따온 ‘만인보’란 제목으로 각양각색 이미지를 펼친 데 이어 올해 베니스비엔날레의 본전시는 ‘백과사전식 전당(Encylopedic Palace)’을 추구했다. 2010년 광주비엔날레 출품작가 중 브

루스 나우먼, 폴 매카시, 파베우 알타메르, 귀평이, 신로 오타케 등 30여 명은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 37개국 작가 150여 명이 참여한 본전시에 한국작가는 단 한 명도 출품하지 못했다.

조선소 터인 아르세날레서 열리는 본전시의 첫 작품인 마리노 아우리티 작 136종 건물 모형은 ‘세상의 모든 지식 박물관’을 뜻한다. 작고작가부터 덜 알려진 신진작가까지 아우른다. 전통 미술에 충실하되 인문학적 볼거리를 갖춘 진지한 전시를 추구한다는 의미다. 스타 사진작가 신디 셔먼은 아르세날레 본전시의 기획 일부를 맡아 인물 이미지들을 한데 모았다. 폴 매카시의 대형 봉제완구, 찰스 레이의 키 2.7m 금발여성의 조각 및 두아네 한손의 실물 크기 여성 조각 등의 인기가 높았다.

베니스=신세미 기자